

# “한중산단 이전기업 세금 감면을”

## 경기 침체·수도권 완화정책으로 담보 무안군, 연결도로 등 국고지원 건의

무안군이 무안기업도시내 한중국 제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10일 이윤석 국회의원을 초청, 무안기업도시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책보고회를 갖고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부동산 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 감면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경감 ▲기업도시 개발이익을 이주대상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국고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말 중국자본 78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1천538억 원 전액을 확

보, 올해 1월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투자자금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라 현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과 무안군 등으로 담보상대를 거둬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역민

들은 “한중국제산업단지는 한·중 수교 17년 역사상 중국이 가장 많은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측은 지난 3월 무안정착과 무안군을 찾은 청유와 중국대사를 통해 “한중국제산업단지는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의 중요한 합작품으로, 중국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1조7천600억원을 투입해 중국 산동성·충칭시 산업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산동성·충칭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안정적인 기업유치와 분양이 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차이나시티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조4천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 광주~장흥 확포장공사 지지부진

## 재정난에 필름공사... 5년째 공정 15%

광주와 장흥을 잇는 직선화 도로 일부인 지방도 839호선과 820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착공한지 5년째 15% 공정에 머물고 있어 장흥군민들의 불만이 높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사업비 1천730억원을 들여 화순 이양에서 장흥 유치를 잇는 총 연장 17.43km 구간의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첫삽을 떠 오는 2013년에 준공하기로 했으나, 재정난을 들어 일부 구간에서 교량 등 구조

물 공사만 필름필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전남도는 해당구간이 지방도 이긴 하지만, 장흥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5년여에 걸쳐 투입된 예산은 총예산의 16%인 334억원에 불과해 사업기간내 준공은 물론건너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태여서 대비 40개 노선에 달하는 전남지역

지방도를 한꺼번에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해당구간의 교통량 등 우선순위를 고려, 전남도회의와 협의를 거쳐 기체발행을 통해 공기안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당구간의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장흥군은 국토해양부와 전남도에 광주대~운주사~영남~보림사~장흥구간을 잇는 별도의 도로망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에서 보림사에 이르는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839호·820호선, 국도 23호선을 연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광산 '산림가꾸기' 순조

### 목표 80% 240ha 정비

광산군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CO2 흡수원 산림 가꾸기 사업’(이하 산림 가꾸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사업비 2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어등산·말미산 등 300ha를 대상으로 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일 현재 전체 공정의 80%에 달하는 약 240ha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군은 산림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과 숲의 덩굴류와 잡목을 제거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나무에 필요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왔다.

또 홍수를 대비해 댐 역할을 하고, 산불과 산사태 예방효과도 볼 수 있도록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있다.

군은 다음달 초까지 산림 가꾸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광산군 산림면적은 전체의 35%인 7천924ha에 달한다”며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을 강화하는 한편, 최적의 탄소흡수원으로 산과 숲이 자리잡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



## 즐 맞춰서 썩~ 고사리손 모내기 체험

사리손으로 모를 심고 있다.

지난 9일 담양 금성농협이 주관한 ‘친환경 명품쌀 모내기 농촌체험’에서 광주·전남 생대유아공동체 아이들이 고

/\*담양=윤정 기자 yj@

## 신안 천일염 문화콘텐츠 개발 탄력

### 군·농어촌공 MOU 체결

신안군은 11~13일 ‘2009농어촌산업박람회’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울 마포구, 목포대학교(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 등과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천일염산업 활성화와 도·농교류를 통한 소금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천일염 산업육성 MOU’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천일염산업 육성 및 소금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발굴과 예로서상을 지원한다. 또 목포대학교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는 천일염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구축, 기업 R&D지원, 마포구와 신안군은 소금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과

수도권내 천일염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서울 마포구는 잃어버린 소금문화 콘텐츠를 찾고, 천일염 주력 생산자인 신안군은 확실한 수도권 마케팅 기지를 확보하는 등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실질적인 모델이 구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810여 생산농가가 2천151ha의 염전에서 전국 생산량의 70%인 24만5천여톤의 천일염을 생산해 연간 55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안=조만기자 wncho@

# 여수 이순신광장 눈·입 모두 즐겁다

## 내년 3월 완공 맞춰 음식특화거리 조성

내년 3월 완공예정인 여수 이순신광장 주변이 선어릿집 등 음식특화거리로 조성돼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순신광장 공사현장에서 가진 6월중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순신광장 주변 선어릿집을 음식특화거리로 조성, 시민들은 물론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

에게 불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어릿집과 회전초밥을 먹을 수 있는 거리와 가게를 만들고 여기에 조형미를 갖춘 아케이드를 설치, 상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여유있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3월까지 안전하면서도 완벽한 이순신광장 조성

을 마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여수시는 국제행사도시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신광장은 여수시 중앙동 일원에 삼정조형물과 주차장, 야간조명시설, 친수시설 등을 마련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순신광장을 옛 여수구항 2단계 정비공사를 통해 친수시설을 추진, 아름다운 해양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여수=박원재기자 ywpark@

## 고구마 이어 양념채소도 브랜드화

### 해남 마늘·양파·고추 등

해남군이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군은 땅끝햇살과 겨울배추·고구마에 이어 주 소금품목인 마늘과 양파·고추 등 양념채소류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남양념채소생산자단체협의회를 구성, 브랜드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양념채소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간상인에 의한 포진거래 등으로 농가 실질소득이 낮은 현실을 극복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10일 땅끝·향산농협, 유통법인 등 양념채소류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체는 브랜드에 의한 소포장 출하하는 물론 산지유통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해남산 양념채소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을 모색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전남 서부조종면허시험장

### 해남 금호방조제로 이전

해양경찰청 지정 전남 서부조종면허시험장이 영암군 삼호읍 나불도에 서 해남군 산이면 금호방조제로 이전해 오는 14일부터 정기시험을 치른다.

시험장 규모는 수면에 바지선(세로 25m×가로15m)을 설치, 시험선 3대를 동시에 댈 수 있는 계류장과 필기응시자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필기 시험장을 갖는다.

한편, 나불도 시험장에서는 2001년 7월부터 8년간 4천353명의 조종면허자를 배출했다. 문의는 목포해경 수상래저계 (061)247-0253.

/\*해남=박희석기자 dia@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종가
광안구	소매지	112/94	193/3	1억3천
	상업지	112/34	193/3	7천5백
	대우주택	222/37	193/3	7천7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담양구	소매지	112/34	193/3	1억1천
	상업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무안구	소매지	112/34	193/3	1억1천
	상업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곡성구	소매지	112/34	193/3	1억1천
	상업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담양구	소매지	112/34	193/3	1억1천
	상업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담양구	소매지	112/34	193/3	1억1천
	상업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대우주택	102/31	82/4	5천5백
	농지	102/31	82/4	5천5백

• 서구청원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액 대출입선)-명도(이사)